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③	205쪽 ¶5-¶6 —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니라 직원이 그 견해를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가 → 그렇다. ①은 결론과 반대, ②는 '의심할 근거도 있다'와 어긋남.
2	④	206쪽 ¶4 — 다모어는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았고, 메모의 표적은 '여성이 절반이어야 한다'는 기대. ②는 메모가 반대한 생각.
3	②	203쪽 ¶5 ~ 204쪽 ¶1 — 민주 제도에 대한 위협 · 정보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전제에 어긋남. ④ 원서는 판정하지 않음(Whether or not).
4	⑤	209쪽 첫 줄 — 자기 의견에 대한 감정과 불쾌해하는 감정은 대등하지 않다(도둑과 주인). ②는 밀이 반박한 쪽.
5	①	204쪽 ¶6 — 형사 명예훼손 쪽으로 법이 다시 돌아갈 때인가(저자의 물음). ④는 저자가 판정하지 않은 말.
6	①	①은 앨릭스 존스(그가 진행한 토크쇼), ②③④⑤는 웰치.
7	②	205쪽 ¶4 다모어의 단서. ① 밝히지 않음 ③ '모든 여성'이 아님 ④ 차이 다수는 작고 크게 겹침 ⑤ 그래프로도 보임.
8	⑤	거짓 자료 · 표절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압력에 굴복해 철회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209쪽 ¶5).
9	①	계속적 관계대명사 자리 → which(what은 선행사를 품으므로 불가). ⑤ frighten + O + into -ing의 수동 → remaining은 맞다.
10	⑤	(A) 사람(economist) → who (B) 블랙리스트에 '오르다' → were blacklisted (C) demand that + (should) 원형 → be rescinded.
11	④	민사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든다(costly, 204쪽 ¶5) → cheap은 부적절. ② naïve는 저자의 판단과 맞다.
12	③	204쪽 ¶3 — 해악이 충분한 토론을 막을 만큼 임박할 때만 금지. ⑤는 imminent와 어긋나고, ②는 해악이 아닌 불쾌감.
13	③	③ 앞 = 블라인드 오디션, 뒤 = 더 많은 기업도 비슷한 방법을(similar ways). That practice = 블라인드 오디션.
14	④	학자들이 치르는 더 큰 대가(209쪽 ¶6 ~ 210쪽 첫 줄) 사이에 「Why Google Was Wrong」의 집단 소송(207쪽 ¶1).
15	④	트위터 · 존스 → (C) 위키리크스 이메일 · 코멧 핑퐁 → (A) These allegations about the restaurant · 봇 · 플린 → (B) 당선 뒤에도 확산 · 경찰.
16	②	논증을 반박하지(refuting) 않고 해로울 수 있다고만 했으며, 피해의 심각성(severity)은 밝히지 않았다(208쪽 ¶5). ③ source는 지문에 없는 말.
서답형	PUBLISH	(1) P more than 400,000 (2) U 1927 (3) B 2010 (4) L 10,800 (5) I False (6) S three (7) H 43 years → P-U-B-L-I-S-H(발표하다, 출판하다). 완성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 함정: Y. more than 40,000 · A. 1919 · D. 2015 · E. 800 · N. True · G. ten · C. 43 days · Z. 30 years.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선거 4일 전에 게시된 그 영상은 40만 회 넘게 시청되었다. (과거분사구 삽입 / 수동)

→ The video, posted four days before the election, was watched more than 400,000 times.

02 그 주장들은 봇이 자주 리트윗해,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이바지했다. (결과의 분사구문 / 동격 that)

→ The allegations were frequently retweeted by bots, contributing to the impression that many people were taking the story seriously.

03 그것은 민주주의가 기대는 기본 전제 가운데 하나, 곧 유권자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 어긋난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콜론 뒤 that절)

→ It is contrary to one of the fundamental premises on which democracy rests: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04 브랜다이스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묘사했다. (describe A as B / 형용사구의 후치 수식)

→ Brandeis described freedom of speech and assembly as functions essential to effective democracy.

05 보고서는 형사 명예훼손이 불필요해졌다고 결론짓지만, 그 결론은 성급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추측))

→ The report concludes that criminal libel has become unnecessary, but that conclusion may have been premature.

06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메모 전체가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현실에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would have p.p. / 전치사 + whether절)

→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do, because the entire memo is about whether certain gender stereotypes have a basis in reality.

07 그는 사람을 그들의 집단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to부정사 주어 / reduce A to B)

→ He says that to reduce people to their group identity is bad.

08 구글은 자사 인력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걱정한다. (be troubled by / 동격 that)

→ Google is rightly troubled by the fact that its workforce is largely male.

09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That is not to say that / 형용사 + to V)

→ That is not to sa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justify.

10 그는 다모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받아 침묵하게 될 직장 문화를 만들었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 intimidate + O + into -ing의 수동)

→ He has created a workplace culture in which those with opinions like Damore's will be intimidated into remaining silent.

11 8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학술지가 논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현재분사 후치 수식 / demand that + 원형)

→ More than 800 people signed a letter demanding that the journal retract the article.

12 편집자들은 공공의 압력에 굴복해 논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pledge + not to V / pressure to V)
→ The editors have pledged not to bow to public pressure to retract an article.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피자게이트 주장이 트위터에 오른 때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약 1주일 전
존스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때 / 시청 횟수	선거 4일 전 / 40만 회 넘게
포데스타가 가끔 식사한 식당 / 해시태그	워싱턴 DC의 코멧 핑퐁 / #pizzagate
이야기를 리트윗한 장군 / 선거 뒤 맡은 직책	마이클 플린 / 국가안보보좌관
웰치가 식당에 간 날 / 달려온 거리 · 출발한 곳	12월 4일 / 350마일 · 노스캐롤라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 이미 자리 잡은 때	1919년 무렵(By 1919)
브랜다이스의 보충 의견이 나온 해 · 사건	1927년 · Whitney v. California
영국의 형사 명예훼손 폐지 / 미국에서의 지위	2010년 / 연방 범죄 아님(일부 주에서는 범죄)
형사 명예훼손을 '불필요'하다고 한 보고서	2015년 · 국제언론인협회(와그너 · 파고)
다모어의 직업 / 메모를 비판한 CEO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순다르 피차이
오케스트라의 여성 수를 크게 늘린 방식	블라인드 오디션(가림막 뒤에서 연주)
집단 소송: 해 · 대표 원고 · 여성 수 · 금액 / 든 법	2021년 · 4명 · 10,800명 · 6억 달러 / 캘리포니아 동일 임금법
학술지 창간호가 나온 때 / 저자의 역할	2021년 4월 / 공동 편집자
니어링이 해고된 대학 / 저자의 임명 취소를 요구한 사람 · 해	펜실베이니아 대학 / 스티브 포브스 · 1999년
투벨 논문의 해 · 학술지 / 철회 요구 서명자 수	2017년 · 『Hypatia』 / 800명 넘게
창간호 가운데 필명으로 실린 논문	10편 중 3편
학자 · 학생 · 대학 공격 건수 / 자리 잃은 학자	241건 / 30명
안찬이 받은 형 · 나라 · 해	징역 43년 · 태국 · 2021년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Free Speech and Fake News」에서 저자는 1919년까지 미국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해 의회가 말을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좁혀 왔다고 소개했다. 아래 빈칸 문장은 그 대목이다. 다른 두 편에도 이 낱말(또는 그 형용사형 · 동사형)이 나와, 어떤 말을 막으려는 쪽이 내세운 까닭이 되기도 하고 말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Why Google Was Wrong」과 「Keeping Discussion Free」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말을 금지할 수 있는 조건: By 1919,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ose words had led to the doctrine that Congress could prohibit speech only if it posed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serious _____.

빈칸: harm (204쪽 ¶2 원문. damage · injury는 뜻이 통하므로 부분 점수, harmful처럼 품사가 틀리면 감점)
근거 1 (예시): In 'Why Google Was Wrong', Google fired Damore, and Pichai's memo said that parts of it crossed a line by advancing 'harmful gender stereotypes', but the author argues that Damore's view, which he says has reasonable scientific support, is one that a Google employee should be permitted to express.
근거 2 (예시): In 'Keeping Discussion Free', the journal lets authors use a pseudonym so that they can avoid personal abuse or irrevocably harming their careers, and the author points out that Winnubst only tried to show that Tuvel's article may be damaging to some, without specifying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damage.
채점: 단어(harm) + 「Free Speech and Fake News」 밖의 두 편에서 근거를 하나씩 + 해당 편 어휘(Pichai, harmful gender stereotypes, cross a line, permitted to express, pseudonym, irrevocably harming their careers, harm to their careers, Winnubst, damaging, nature and severity 등) 포함. 근거 1은 피차이가 내세운 'harmful gender stereotypes'(205쪽 ¶2)와 그 해고에 대한 저자의 판단(205쪽 ¶5~¶6), 근거 2는 필명 장치가 막으려는 경력의 해(208쪽 ¶1 · 210쪽 ¶1)나 위너브스트가 내세운 피해에 대한 저자의 지적(208쪽 ¶5)과 맞물려야 한다. 피차이의 'harmful'을 저자의 판단으로 쓰거나, 저자가 다모어의 주장이 옳다고 판정했다고 쓰면 감점 — 저자는 어느 쪽이 옳은지 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205쪽 ¶5). 「Free Speech and Fake News」에서 저자가 형사 명예훼손을 되살려야 한다고 단정했다고 써도 감점 — 저자는 물음으로 남겼다(204쪽 ¶6). 이 문제는 저자의 논증을 정리하는 것이지, 성별 차이나 특정 논쟁에서 어느 쪽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다.